

‘DLF사태’ 경영진 중징계… 우리금융 지배구조 ‘안갯속’

오는 7일 우리금융 이사회 열 예정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추천 재논의 손 회장 “잠시 시간적 여유 갖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최고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의 지배구조가 미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는 7일 예정된 우리금융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월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 우리금융은 결산 실적을 보고받는 정기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DLF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DLF의 손실 위험을 고객에게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삼아 경영진을 문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은행 측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린 주주총회를 거쳐 연임을 앞두고 있었으나,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일정도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우리은행 명동사옥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임추위는 이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을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애초 임추위는 3차례에 걸쳐 3명의 후보(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동연 우리FIS 대표 겸 우리은행 IT그룹 부행장·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부장 겸 HR그룹 집행부행장)를 지난달 28일 선정했다. 29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진행해 후보를 1명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격론 끝에 최종 후보 결정을 31일로 미룬 바 있다.

우리금융 내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금융은 31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이사회 위원들에게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갖겠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이 기간 동안 행정소송을 진행해 연임을 강행할 지, 사임의 뜻을 밝힐 지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으로서는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원을 통해 효력정지가 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금감원에 맞서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 또 향후 금융위원회에서의 추가 공방이 길어져 결론이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질 경우, 손 회장의 연임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우리금융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일단 금융위원회 회의 최종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염두에 두고 추후 진행상황을 논의하겠다”며 “일부 언론에서 손 회장의 연임 포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IT주, 유동성·투자가치 측면서 관심”

>> 1면 ‘안전형 해외자산 관심’서 계속

◆IT·글로벌 시장 유심히 살펴봐야

전문가들은 올해 주식시장 유망주로 IT·반도체를 꼽았다.

정문희 부장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부진했던 한국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한국 디램(DRAM) 반도체 가격 반등 및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등 IT업종 위주의 국내주식 투자가 유망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홍식 우리은행 본점영업부 PB팀장 또한 “글로벌 IT관련 주식은 그 유동성과 투자가치 면에서 올 한 해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글로벌 투자 시장에 대한 매력도 커지고 있다.

배성수 팀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경기의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연방준비위원회의 자산매입 정책 지속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어 보이지만, 경기 반등에 따라 실적 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럽국체 또한 지난해 4분기 경기지표가 둔화되면서 영란은행(BOE)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 행렬이 기대되면서 선진국 금리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불법 빚독촉, 무료로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금감원 Q&A

Q. 요새 채무업체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협박성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이런 협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불법적인 빚 독촉(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대리인이 되어 채권추심 과정을 대신해드립니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채권추심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도 대리해줍니다. 이런 제도의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봤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그리고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대상자만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포탈 ‘파인’에서 미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 ▲반복적 또는 야간에 전화 등과 같은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활용하기 바랍니다.

/김희주 기자 hj89@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

 <p>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1946년 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상고 - 부산대 무역학과 - 홍익대 세무학 석사 -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 선린대학교 강사 <p>임기만료: 2020년 3월 22일</p>	 <p>빈대인 BNK부산은행장 1960년 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래원예고 - 경성대 법학과 - 경성대 대학원 법학 석사 -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 부산은행 부행장보 - 부산은행 은행장 - 부산은행 은행장 직무대행 <p>임기만료: 2020년 3월 21일</p>	 <p>성명환 BNK저축은행장 1960년 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상고 - 부산은행 양산지점장 -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 부산은행 부행장보 - 부산은행 부행장 - BNK신용정보 대표 <p>임기만료: 2020년 3월 22일</p>	 <p>이두호 BNK캐피탈 대표이사 1957년 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상고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 부산은행 여신기획부장 - 부산은행 부천동지점장 -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 부산은행 부행장보 - 부산은행 부행장 <p>임기만료: 2019년 10월 10일</p>	 <p>황윤철 BNK경남은행장 1962년 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상고 - 경남대 회계학과 - 경남은행 부행장보 - 경남은행 부행장 - BNK금융지주 상무 - BNK금융지주 전무 - BNK금융지주 부사장 <p>임기만료: 2020년 3월 27일</p>
---	---	--	--	--

자료/금융감독원

BNK금융 차기회장, 김지완 연임에 무게

오는 3월 최종 후보자 공식 선임 외부공모 않고 내부 후보군 진행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을 논의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세 번째 열렸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3년간 리스크 없이 탄탄한 조직을 일군 김지완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BNK금융은 이달 중 임추위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최종 후보자를 차기 회장으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BNK금융은 지난달 31일 3차 임추위를 열고 후보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후보는 총 5명으로 김지완 BNK금융회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황윤철 경남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 성명환 BNK저축은행 대표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달 22일 1차 임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임추위는 회장후보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며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정기영 위원장과 차용규, 문일재, 유정준, 허진호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선임 절차는 외부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임추위가 선정한 내부 후보군으로 진행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43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지난 최고경영자를 선임할 때에는 전 회장의 법적 구속 여파로 내·외부 공모방식을 택했지만, BNK금융의 지배구조가 안정구도에 접어들어 따라 내부 인사를 선임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지완 회장이다. 지난해 3월 BNK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13조(이사의 임기)에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내규상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 9월 취임한 김 회장은 3년간 큰 리스크 없이 BNK금융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직후 김 회장은 투명경영을 위해 부산은행장과 지주, 부산은행 이사회 의장을 모두 분리하는 지주체제의 근간을 마련했다. 백년대계위원회도 운영해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으로부

터 ‘지배구조 우수기업’상을 받았다.

증권·자산 운용 등 비은행 부문 사업을 강화해 그룹 전반의 실적도 개선했다. 지난해 BNK금융은 6143억원의 규모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취임 당시 4831억원(2017년 3분기)보다 131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어지러운 시기부터 큰 문제없이 경영을 해왔고, 지난해 실적도 증가한 상황이어서 김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추위가 마무리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주요 계열사도 임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 연임이 확정될 경우 빈대인 부산은행장과 황윤철 경남은행장도 모두 연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BNK금융은 이달 중 4차 임추위를 열고 면접 등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최종 후보자는 오는 3월 정기주주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차기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